

# 한국 유권자의 정치 지식(Political Knowledge)에 관한 연구 현황과 과제\*

류재성 | 계명대학교

본 연구는 정치 지식에 대한 미국에서의 연구를 소개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연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엄밀한 정치 지식 측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 시론이다. 정당일체감, 정치 이념, 정치 효능감 등과 함께 개인의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선호 형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인식되어 온 정치 지식에 대한 한국 정치학에서의 연구의 공백은 개인의 결정 및 선택, 나아가 여론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심각한 연구의 결핍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지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대중들에 의한 정치·사회적 의제 설정 및 공론 형성을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의 여론 형성 및 변화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확대·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정치 지식,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여론의 형성과 변화

## I. 문제 제기

최근 한국에서의 정치적 갈등은 정치엘리트들 간의 당파적 갈등을 넘어 빈번히 전 국민적 범위에서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정치제도 및 과정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기반으로, 정치·사회적 의제 설정, 여론 형성 및 의견 표출에 있어 일반 대중들의 역할 및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 일반 대중의 의사표현을 매개하는 전통적인 정치기제를 대체 혹은 우회하여 일반 대중이 스스로 정치·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그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동원·조직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의 정치 참여 확대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주요한 배

\* 본 연구는 2009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신진)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경으로 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정치엘리트 및 언론으로부터 대중에게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하향식 정보 흐름을 대체 혹은 보완하여 대중으로부터 대중 혹은 대중으로부터 정치엘리트로 이어지는 수평적 혹은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켰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은 수동적 미디어 수용자가 아닌 “1인 미디어”로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가공하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혁신적인 변화는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 개인들(super-empowered individuals)이 정보의 순환적 생산·공유를 통해 의제설정 및 공론형성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사실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 그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 및 갈등의 유발, 정치적 논쟁의 탈정치화 혹은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축소 및 그것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부인 등 부정적인 측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sup>1)</sup>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연구에서 조기숙·박혜윤(2008)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80%가 대학 재학 이상으로 높은 학력보유자임이 밝혀졌다. 일반국민이 TV와 라디오에서 주로 정보를 얻는데 비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도 보였다”고 밝힌다(243). 이 연구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갖는 일정한 특성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촛불집회라는 거대한 사회현상이 제기했던 주요한 문제의 일단, 즉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 혹은 편향성 및 개인들이 정보를 검색, 취득,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선호 및 결정에 있어서의 차이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촛불집회 현상에 대한 심화된 이해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분석 및 해답을 요구한다고 보인다.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에 의해 제공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슈에 대한 정보 및 그를 해석하는 관점(frames)은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것이었나? 미디어 및 정치 엘리트에 의해 제공되는 새로운 정보는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결정 및 선호로 전환되는가? 제공된 정보 및 관점에 대한 개인들의 결정은 숙고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혹은 자동적,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정보 처리 방식에서의 차이에 따른 결정 및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촛불집회 참가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을 둔 선택과 결정이었는가

1) 의제설정의 민주화 및 대중의 지혜(다수 대중이 집단 참여하여 생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희정·강장묵(2008), 나은경·이강형·김현석(2009), 조기숙·박혜윤(2009), 채장수(2009) 참조.

아니면 감성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가?

요컨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정보의 생산·유통 방식의 변화는 정보의 역할, 더 정확히는 개인들의 정보 취득(acquisition)과 처리과정(processing)에서의 상이한 특성 및 그에 따른 정치적 선호 형성 및 결정에 있어서의 변이 양상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책 결정 및 정치 과정에서 여론이 차지하는 역할의 점증하는 중요성 및 개인들의 선호 형성에 있어서의 정치 지식의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 정치학계에서 새로운 정보 및 정치 지식의 여론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여론 형성과 변화의 동학 및 그것의 미시적 기반을 정치 지식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론 성격의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유권자의 정치 지식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의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 정치 지식을 종속 변수로 연구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암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정치 지식을 주요한 독립 변수로 채택한 연구의 경우에도 그것의 측정이 엄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전개한다. 2장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선호 형성은 어떻게 상이한가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시민적 덕성 혹은 자질(civic virtue or competence) 중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어 온 정치 지식에 대한 기존 논의를 일별하고, 정치 지식과 연관된 다양한 기타 개념 및 그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정치 지식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한국에서의 정치 지식은 독립된 주제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투표 선택이나 정책 선호, 혹은 기타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만 연구되어 왔다. 더불어 이들 연구에서 정치 지식은 연구자에 따라 편의적으로 측정된 설문 항목들을 정치 지식의 대체 변수로 이용해 왔음을 보여줄 것이다. 5장에서는 최근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의 형성과 변화의 미시적 동학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정치 지식을 경험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하는 방법 및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II. 정보 처리 방식과 정치 지식

인지심리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동기 및 활용가능 한 인지자원(cognitive resources)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보다 의식적(conscious)이고 숙고된(deliberative) 정보 검색·취득·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이들은 선호 형성에 있어 이용 가능한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인지·활용할 뿐 아니라, 이렇게 결정된 정치적 선택 및 선호는 개인의 가치 및 신념 체계, 정치적 이념 및 이해관계와 보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Petty and Cacioppo 1986; Chaiken and Trope 1999; Lodge and Taber 2000; Luskin, Fishkin and Jowell 2002).

그러나 많은 경우 개인의 정치적 선택 및 선호 형성은 자동적(automatic), 무의식적(unconscious), 비의도적(unintentional)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달되는 새로운 정보의 객관적인 내용은 숙고되거나 저장(혹은 기억)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개인들은 자신들이 노출된 새로운 정보의 내용 자체를 저장(혹은 기억)하거나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decoding)·평가(evaluation)하는 의도적·의식적 인지과정을 생략한다. 이 경우 미디어에 의한 틀짓기 효과(framing effect)<sup>2)</sup> 혹은 격발효과(priming effect)<sup>3)</sup> 등의 영향 하에서 개인들의 선호는 즉각적·자동적으로 결정·표출된다. 말하자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인들 스스로의 의식적이고 숙고된 인지 및 이해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특정한 해석(과 그것의 반복 강조)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편견(prejudice)과 고정관념(stereotype)의 활성화 및 강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형성·표출된 선호는 미디어의 편향 및 개인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에 따른 편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Fazio and Williams 1986;

- 
- 2)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동기 및 능력의 측면에서)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 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미디어는 이들에게 복잡한 정치적·정책적 이슈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근거(reference) 및 관점을 제공한다. 미디어가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특정한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치적·정책적 이슈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틀짓기효과라 한다(Gamson 1992; Iyengar and Kinder 1987; Krosnick and Kinder 1990; Nelson, Clawson, Oxley 1997; Druckman 2004).
  - 3) 틀짓기효과가 정치적 정책적 이슈를 판단하는 일정한 근거 및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격발효과는 미디어 노출을 통한 정보의 환기(retrieving)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슈의 현저성(saliency) 혹은 중요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슈의 현저성은 미디어 노출의 최근성(recency) 및 빈도(frequency)에 의해 결정된다(Hetherington 1996; Valentino, Hutchings, and White 2002).

Bargh 1994, 1997; Bargh, Chen, and Burrows 1996), 많은 경우 개인의 가치 및 신념, 이해관계와도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Lau and Redlawsk 1997, 2001).

요컨대 정보처리의 상이한 방식은 정치적 선택(혹은 선호 형성)의 방향 및 질<sup>4)</sup>을 결정하며, 나아가 개인들의 선택(혹은 선호 형성)의 집합적 표현인 여론의 방향 및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개인들의 상이한 정보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여론의 형성과 변화라는 거시현상(macro phenomena)의 개인적 인지 차원에서의 미시적 동학(micro dynamics)을 이해하는 핵심이다(Iyengar and McGuire 1995; Kuklinski 2001; Sears, Huddy, and Jervis 2003).

개인들의 정보 취득 및 처리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체제 차원이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보 및 해석은 일정한 노동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생성·유통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와 정치엘리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이 여론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엘리트 및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조작, 왜곡, 편향된 것이라면 대중들의 선호는 많은 경우 그렇게 조작, 왜곡, 편향된 정보에 기반을 두어 결정된다(Popkin 1991).

두 번째 변수는 개인들의 정치 지식수준이다(Converse 1964, 2000; Luskin 1987; Kinder and Sears 1985; Zaller 1991). 정치 지식은 개인의 태도(attitudes), 가치(values),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과 정치적 선택 및 정책적 선호 형성 사이에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mediating variable)로 기능한다(Luskin 1987).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그것을 해석·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성에 일관되게 근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열성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검색·취득하지만, 그것의 해석에 있어서는 분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일정한 이념·당파적 편향을 갖는다(Lodge and Hanmill 1986; Lodge and Taber 2000; Taber and Lodge 2006). 반면 정치 지식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새로운 정보의 검색·취득에 무관심하거나 덜 열성적이며, 많은 경우 정치적 증거 및 배경 지식, 혹은 일관된 정치적 태도 및 가치체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해석·평가하는데 있어 사회적 분위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거나 지배적인 여론 혹은 자신이 접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

4) 맨스브리지(Mansbridge 1980)와 바텔스(Bartels 1993, 1996)에 따르면 정치적 선택은 방향을 가질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정한 질을 가진다. 이들에 따르면 “좋은” 혹은 “옳은” 선택은 개인들의 가치와 이해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선택지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다(Zaller 1991; Taber and Lodge 2006). 요컨대 대중들의 정치 지식수준은 새로운 정보를 검색·취득·해석·평가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결정 및 선호 형성의 차이로 이어진다.

### III. 정치 지식에 대한 기존 이론

#### 1. 왜 정치 지식이 중요한가?: 민주주의와 정치 지식

시민적 덕성과 능력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sup>5)</sup> 시민들은 정치적 사건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인지·이해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선호를 형성·표출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Berelson et al. 1954; Berelson 1950; Price 1992). 정치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 혹은 입법과정은 설득을 통해 선호 및 지지를 동원하고 이해 및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론적으로, 정치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 혹은 입법은 따라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이 형성하는 여론의 방향 및 질은 궁극적으로 정치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 및 입법의 방향 및 질을 결정하며, 따라서 여론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시민 개인의 선호 및 의사의 방향 및 질은 그 집합으로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향 및 질을 결정하는 최종 심급에서의 요인이다(Lupia et al. 2000; Lupia and McCubbins 1998; Popkin 1990; Delli Carpini and Keeter 1989).

관용이나 애국심 등의 시민적 덕성과 같은 규범적 자질을 제외한다면, 민주적 의사결정 및 입법을 위한 시민적 능력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지각, 공적인 사건들에 대한 인지, 정

5) 여기에는 다양한 이설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대중들의 집단적 지식 혹은 지혜에 대한 믿음과 부정(혹은 두려움)이라는 매우 상반된 견해가 양립되어 왔다. 대중의 지혜에 대한 믿음은 이들의 정치 과정에의 참여를 허용·고무하였지만, 대중의 지혜에 대한 부정(혹은 두려움)은 이들의 정치 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 그러나, 적절한 정보(relevant information)에 기초한 시민적 요구(civic input)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정치적 결정이 정치 과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립셋(Lipset 1960), 달(Dahl 1989), 팝킨(Popkin 1990), 루피아와 맥커빈(Lupia and McCubbins 1998)을 참조할 것.

책대안들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등 인지적 자질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인지적 자질의 핵심은 개인들의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에 저장된 정치 지식이다(Converse 1964; Luskin 1987; Zaller 1990;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Kuklinski et al. 1998). 상당한 정도의 정치 지식을 가진 개인들은 정치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가치와 이해(interests)를 정치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의지가 있다. 개인들의 가치와 이해는 정치적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사실 및 결정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인지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운영은 자신의 가치와 이해에 대한 인지, 그것들의 정치적 실현을 위한 의지와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식을 소유한 시민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요컨대 높은 수준의 정치 지식을 소유한 다수의 시민은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 지식은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나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과 더불어 개인들의 정치적 결정 및 선호 형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Zaller 1990).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러나, 미국 시민들의 정치 제도와 과정, 주요한 정치 행위자 및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매우 낮을 뿐 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공적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정보 취득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Smith 1989). 미국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며, 비일관적인 정치적 선호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많은 미국 시민들은 정치적 사건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해 “무태도의 태도(non-attitudes)”를 보이고 있다(Converse 1964; Luskin 1987).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이러한 미국 시민들의 시민적 능력 혹은 정치 지식의 결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지식 결여의 효과 혹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다. 루피아(Lupia) 등의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me)은 미국 시민들의 정치 지식의 결여를 인정하지만, 그러한 무지가 정책 결정 및 후보 선택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들은 일종의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로서 정보 취득과 처리에 있어 개별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감성적 선호 등과 같은 휴리스틱스(heuristics) 혹은 정보지름길(information shortcut)을 통해 더 적은 인지적 비용으로도 같은 질의 선택과 선호에 도달한다. 일반 대중들은 복잡한 정치적 사건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소유할 동기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정치 지식의 유무 혹은 과소를 통해 정책 선택 및 후보 결정의 질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Althaus 1988; Popkin 1991; Lupia and McCubbins 2006; Lupia et

al. 2000; Sniderman et al. 1991).

미국인들의 시민적 능력 혹은 정치 지식의 결여는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이론적 퍼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다(Page and Shapiro 1991; Popkin 1991; Lupia et al. 2000; Kuklinski and Quirk 2000; Lau and Redlawsk 2001).

## 2. 정치 지식의 정의 및 역할

정치 지식은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에 축적된 정치에 관한 일련의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10).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지식은 정보의 양(quantity), 정보의 범위(range), 정보들 사이의 조직화(organization or constraint)의 3범주 혹은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정치 분야를 아우르는 많은 양의 정보는 그를 위한 체계적인 저장 명세 목록(inventory system)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의 양과 범위, 그것들의 조직화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컨대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억한 가운데 정치적 사건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organized thinker)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지식과 연관된 다수의 개념이 존재하고 이들은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정치 지식과 여타의 개념은 서로 구분된다. 정치 정보(political information)는 정보의 양과 범위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으로 여기에서 정보의 조직화(organization) 측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적 정교성 혹은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나 정치적 전문성(political expertise)은 정보의 양과 범위를 하위 단위로 그것들 사이의 고도의 연관성, 체계성, 조직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Luskin 2002).

경험적 연구 및 이론에 따르면, 정치 지식은 공적 교육 수준, 정치적 참여, 뉴스 소비와 그로부터의 학습,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 일관되고 안정적인 의견의 유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mith 1989; Zaller 1990; Converse 1961). 그러나 개념적으로 정치 지식은 평가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가치 및 신념과 구별되고, 인지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논리(logic)와 추론(reasoning)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과도 구별되며, 행태적 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참여 및 미디어 활용 등과도 구별된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인지적으로 정치 지식은 새로운 정보의 의미화(encoding) 및 해석(decoding), 저장(storing) 및 상기 활용(retrieving) 등 정보 처리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Krosnick 1990; Bargh 1999; Kuklinski 2002).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넓은 맥락 및 높은 추상 수준에서 의미화 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상기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선호를 형성한다. 이러한 정보 처리를 통한 의사 결정 및 선호 형성은 일련의 결정 및 선호 형성에 있어서 일관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게 하며, 가치 및 신념 체계와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한다(Luskin 1989;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정치 지식은 또한 시민적 태도 및 행태(civic attitudes and behaviors)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정치 지식은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등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및 규범에 대한 인지 및 수용을 포함하며,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이러한 가치 및 규범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Gibson 1992). 둘째, 정치 지식은 정치적 관심 및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sup>6)</su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투표 참여와 같은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 지식이 높은 개인들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 및 정치 효능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적 태도는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로 이어진다(Neuman 1986; Leighley 1991).<sup>7)</sup> 셋째, 정치 지식은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 및 신념에 기반 해서 자신들의 각성된 이해관계(enlightened interest)를 가지게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결정 및 의사표현을 가능케 한다(Bartels 1990). 여기서 각성된 이해관계란 정치 과정, 주요 결정자(decision-makers) 및 관련된 이슈의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understanding)에 기반 한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인지·태도·행태적 차원에서의 개인들 간의 정치 지식수준의 편차는 상당하다. 달리 말하면, 정치 지식수준의 불평등은 인지·태도·행태적 차원에서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정치 시스템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각성된 이해에 기반 하여 그를 표현하며 정치적 행동에 나서 는 개인들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며, 따라서 결국 정치 지식의 차이는 이해관계 실현에 있어

6) 정치 효능감은 정부의 반응성(governmental responsiveness)에 대한 믿음과 신뢰(외적 정치 효능감) 및 개인들이 공적 업무를 이해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내적 정치 효능감)을 일컫는다(Finkel 1985; Neimi et al. 1991).

7) 핑켈(Finkel 1985)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 효능감 및 정치 참여는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정치 지식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강력하게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서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요컨대 인지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 개인 간 차이가 물질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체제차원의 불평등으로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 지식의 불평등의 문제는 개인 간 인지 능력과 의지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결정의 민주적 반응성 및 합법성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sup>8)</sup>

### 3. 정치 지식의 측정

정치 지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되어 왔다. 간접적인 방식의 측정으로 교육 수준 및 미디어 이용도 등을 대용(surrogate)으로 사용하거나, 설문담당자가 응답자의 정치와 공적 사건에 대한 정보의 일반적 수준을 5점 척도로 판단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Zaller 1996).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 역시 척도의 신뢰성 및 유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정치 지식의 엄밀한 측정은 아니다(Luskin 2002).

교육 수준의 경우 재학 연수(schooling years)를 척도로 사용하는데, 이는 재학연함과 정치 지식의 정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전제한다. 정치 지식은 공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 능력, 기회를 통해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재학 연수에 단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같은 학년의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들 사이의 차이는 다른 학년의 “좋은”(혹은 “나쁜”) 학생들 사이의 차이 보다 클 수 있으며, “재학”과 “수학”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sup>9)</sup> 미디어 이용도의 경우 정치적 관심과 정치 지식이 구분되지 않는데, 관심은 지식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니며 더구나 관심은 주관적인 자기 평가에 의한 것으로 지식의 객관적인 유무에 대한 측정은 아니다. 설문담당자에 의한 평가의 경우 설문대상자의 태도, 외모, 화법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대해 설문담당자가 가질 수 있는 주관성

8) 이에 대해서는 델리 카피니와 키터(Delli Carpini and Keeter 1996)의 7장을 참조할 것.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 지식의 불평등은 개인적인 차원의 특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불평등으로 확대된다. 여성, 흑인, 빈곤층, 젊은 층의 정치 지식은 남성, 백인, 부유층 및 장노년층의 정치 지식보다 낮은 수준이며, 공공 정책 영역에서 전자의 집단들의 이해관계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9) 다음의 인용을 참조할 것: “Education is erudition but not duration. Four years at Harvard are not the same and four year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North Dakota at Hoople are not the same... An educated man and woman is someone who has learned a great deal, and ignoramuses cannot be termed educated no matter how many years they have studies, or where. In this sense, education is the highest grade or degree attained, regardless of how much or little information or training may have been provided or absorbed”(Luskin 2002).

의 개입이 문제가 된다(Smith 1989;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직접적인 방식의 정치 지식 측정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한다. 첫째 방법은 여러 특정 이슈에 있어서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인지여부를 통한 측정이다. 예컨대 사회복지 정책 및 국방 정책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을 묻고, 이때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 민주당의 입장을 공화당의 입장 보다 더 많은 지출로 인지하고 국방 정책의 경우 민주당의 입장을 공화당의 입장 보다 더 적은 지출로 인지하는 경우 올바른 이해로 간주하는 식이다(Luskin 1986).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주요 정치 행위자, 정치 제도(혹은 게임의 규칙, rules of the game) 및 주요 정책 현안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기대되는 핵심적인 정치적 사항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주요 정치행위자에 대한 설문은 특정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이름을 묻거나(Do you happen to know the name of the U.S. secretary of state?), 반대로 특정인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을 묻는다(Do you happen to know what job or office is now held by Madeleine Albright?). 정치 제도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상원의원의 임기를 묻거나(How long is a senator's term?),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묻는(Whose responsibility is it to determine if a law is constitutional?) 방법이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은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rograms)나 뉴딜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현재의 실업률 혹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지식 여부, 복지나 국방 관련 연방정부의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에 대한 지식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Delli Caprini and Keeter 1996).

직접적인 방식의 정치 지식수준의 측정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 지식의 영역(domain) 문제다. 즉 정치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영역을 한정하거나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진 정치 지식 역시 일반적(혹은 보편적)인 정치 영역(general political domain)에서 정치와 관련된 지식을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책 분야(domain specific)에서의 지식을 중심으로 측정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특정한 정책 분야에서만 지식을 갖는 경우 보다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식을 갖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치 지식의 측정에 있어서 관련된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 문항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둘째, 질문의 난이도 문제이다. 질문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질문은 피해야 하지만, 질문들 간의 난이도가 일정하게 통제될 필요는 없다. 50% 정도의 정답과 오답 비율을 갖는 질문은 매우 어렵거나 매우 쉬운 질문에 비해 중

간 수준에서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호될 수 있고, 10%나 90%와 같이 극단적인 정답률을 갖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Nunnally 1978).

셋째, 특정한 정책적 편향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은 그와 연관된 감성적 반응을 이끌어낼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자유주의적 편향성(liberal bias)을 내포하며, 이럴 경우 응답자의 대답은 지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근거하게 되므로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될 수 없다.

넷째, 정치 지식수준을 척도화(scaling) 하는 데 있어 질문들 간의 신뢰성(scale reliability)을 확보하는 문제다. 항목들 간의 상호관련성의 측정(예컨대 alpha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질문 항목들을 중심으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다섯째, 정치 지식과 이론적인 연관이 밝혀진 여타 개념들과의 관련성을 유지함으로써 척도의 유효성(scale validity)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 지식수준은 교육 수준, 정치에 대한 참여 정도, 정치 관심도,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 변수들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질문을 선별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리 카피니와 키터(Delli Carpini and Keeter 1996)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sup>10)</sup>에서 실시된 20개 항목<sup>11)</sup>의 정치 지식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분석한 후, 이상에서 언급한 측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치 지식 측정을 위한 5개 설문 문항을 제시한다. 첫째는 하원다수당을 묻는 질문으로 정답률은 55%였으며, 여타 질문들과의 연관성은 0.60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의회 재가결을 위한 찬성률(veto override %)을 묻는 질문으로 정답률 37%, 여타 질문과의 연관성은 0.58로서 5개 설문 문항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으며 상당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질문 항목이다. 세 번째는 정당들의 상대적 정치 이념적 위치(party ideological location)를 묻는 질문으로 정답률 57%, 여타 질문과의 연관성은 0.54로서 5개 설문 문항 중 가장 변별력이 큰 질문이다. 네 번째는 사법적 해석(judicial review)의 인지도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정답률 68%, 여타 질문과의 연관성은 0.52다.

10) 1990-91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11) 20개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정답률 %): House party(55), Veto override %(37), Senate party(47), Ideological party(57), Defense party(52), Judicial review(68), Nominate judge(51), Mandela(17), Thatcher(53), Gorbachev(71), Spend party(45), Black party(42), Bill of Rights(43), Quale(84), Senator's term(25), Name one House candidate(23), Foley(12), Rhenquist(5), Times a president can be elected(73), Mitchell(3). 20개 설문 항목 평균 정답률은 43%이다.

다섯 번째는 부통령 이름의 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정답률 84%로 20개 질문 항목 중 가장 쉬운 질문이었으며, 여타 질문과의 연관성은 0.48이었다. 이상 다섯 질문들 사이의 연관성(alpha)은 0.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정치 지식의 엄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치 지식 척도를 구성하는 개개의 설문 항목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식 영역, 난이도, 설문 항목들 간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리 카피니와 키터(Delli Carpini and Keeter 1996)의 위의 연구에 따르면 5개의 선별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된 정치 지식 척도가 그의 연구 대상인 39개 설문 항목으로 측정된 정치 지식 변이의 75%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수의 질문 없이도 일반적(혹은 보편적)인 차원의 정치 지식(general political knowledge)의 엄밀한 측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최소한의 설문 항목의 선별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정치 지식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 IV. 한국에서의 정치 지식 연구 현황

정치 지식수준과 그것의 영향에 대한 미국 및 서구 유럽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에 비해 한국에서의 연구는 일천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여론이 갖는 점증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연구의 공백이다. 미국 및 여타 국가에서의 투표 선택이나 정책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연구되어 온 정당일체감, 정치 이념, 정치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고 그 설명력이 검증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sup>12)</sup>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오랜 동안 연구되었던 주요 정치학적 개념인 정치 지식에 대한 연구가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부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그 동안의 한국 정치가 민주화, 정권교체, 헌법 개정 등과 같은 통치 구조 혹은 체제 차원의 변화(혹은 개혁)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작동되어 왔고, 정치학 연구 역시 이러한 현실 정치의 필요에 부응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정치학계에서 개인의 행태 및 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접근을 이용한 정치현상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상대적

12)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태(2003), 김민정 외(2003), 강원택(2009) 참조.

으로 높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정치 지식수준이 여타 국가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 간, 집단 간 편차는 작을 것이라는 믿음도 연구 공백의 한 원인일 수 있겠다.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심리학적 접근법을 수용해 온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정치 지식이 후보 선택 등의 정치적 결정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예컨대 이준웅(1998)은 후보 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이미지를 제시하고, 정치 지식수준에 따른 후보 선택 준거에 있어서의 차이를 연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 지식<sup>13)</sup>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이미지에 의존해 후보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면서 후보자 이미지가 유권자 판단의 스키마(schema)<sup>14)</sup>로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정치 지식수준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 기준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텔레비전 토론의 인지적 효과와 관련해 김관규·구교태·이준웅(2006)은 텔레비전 후보 토론이 정치 관심도와 후보자에 대한 정치 지식<sup>15)</sup>이 낮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후보자에 대한 정치 지식이 부족한 경우 토론 시청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즉 후보자에 대한 정치 지식이 낮은 유권자가 토론을 시청하는 경우, 그

13) 이준웅(1998)은 실제로 정치 지식 대신 정치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 변수를 이용하는데, "정치 세련도는 조사대상자가 '정권교체인가 세대교체인가', '내각제인가 대통령제인가', 그리고 '보수인가 진보인가' 라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세 후보가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조사대상자가 평가한 세 후보의 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서, 후보자 간 입장 차이가 합당하니 판정한 후, 맞으면 1점씩 간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했다"(271-2).

14) "직접적인 것이든 매체를 통해 매개된 것이든 정치적 경험은 보편적이며 누구나 기존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적 지식체계를 지닌다. 사회인지론에 의하면 개별 시민의 정치적 지식체계는 반복된 이용과 통합에 의하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를 정치 스키마(political Schema)라 한다(이준웅 1998, 251).

15) 저자들은 정치 지식을 텔레비전 토론 시청 전과 후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토론 시청 후의 정책 이슈에 대한 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대되었다. 사전검사 질문 항목은 "① 서울시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을 제시한 후보 ② 서울시 뉴타운 현재 26개에서 50개 지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후보 ③ 상대방의 정당 대변인으로부터 난자기증모임 발기인에 참여했다고 비난 받은 후보 ④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겠다는 후보 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민이라고 주장한 후보"였고, 사후검사 질문은 ① 서울시 각 구마다 자립형 사립고 건립을 주장한 후보 ② 용산주택단지에 주택 16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한 후보 ③ 김포매립지에 화장장을 건설하겠다는 후보 ④ 서울시를 국제적 수준의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한 후보 ⑤ 시민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그 밖의 논문에서도 정치적 결정에 대한 미디어 효과를 매개하는 주요 변수 혹은 미디어 효과의 종속 변수로서의 정치 지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하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온 정치 지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 1.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한 정치지식

문성철·양문희(2009)은 대통령 선거 토론 프로그램 시청이 정치 효능감과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대선 토론 시청량은 정치 지식 인지를 통해 대통령 선거 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지식 인지와 대통령 선거 관심을 통해 정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 지식 인지, 대통령 선거 관심, 정치 효능감을 통해 선거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55)고 밝힌다. 요컨대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치 지식의 확장이 정치 효능감의 상승을 통해 선거 참여의 확대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인과사슬에서 정치 지식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 지식은 설문 대상자가 스스로의 정치 지식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응답하는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 말하자면, “... 정치 지식 인지는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모른다, 7 = 매우 잘 알고 있다)로 측정”한다(145). 이러한 측정 방법은 매우 이례적(혹은 독창적)인 것으로 연구자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명백한 연구의 한계다: “정치 지식 인지...(는) 실제 정치 지식 정도를 측정...해야 하나, 본 연구는... 단순히 수용자의 인식만을 조사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둔다(145) ...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정치지식 정도가 대선 토론 시청 이루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이용과 정치지식과 선거에 관한 관심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164). 요컨대 이 연구는 정치 지식의 측정이 연구자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정치 지식수준은 결국 중간 척도를 선택하는 응답자의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응답자의 중간 척도 선택은 온건함, 겸손함(혹은 거만함)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social desirability)를 따르려는 성향의 반영이다. 측정된 정치 지식의 평균값(4.23)이 이론적인 평균값 3.5에 근접하고 있는 것도 응답자의 이러한 태도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 2. 주요 정치인 및 정당 후보 인지로 측정된 정치 지식

이효성·김인영(2003)의 연구 역시 문성철·양문희(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효성·김인영(2003)의 연구는 미디어 이용 유형이 유권자 정치 지식,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년의 16대 대선에서 “인터넷의 정치 사이트가 정치지식과...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보다 체계적인 단계별 회귀분석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1). 여기에서 정치 지식은 주요 정치인 및 정당 후보에 대한 인지 여부로 측정된다: “정치지도자(“서울시장의 이름을 아십니까?”)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이름(“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아십니까?”) 및 국회다수당명 등 총 10개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항목의 수를 합산해 정치지식의 측정치로 삼았다”(715).

전용주·차재권·김은미(2007)는 정치 사회화가 부산 지역 거주 대학생들의 지지정당 유무, 정치성향, 정치관심, 정치 지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정치 지식 정도는 남학생, 고학년, 인문계열, 부모 및 친구와의 대화 빈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 여기에서 정치 지식은 현역 주요 정치인 5명(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장, 부산시장, 본인 거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에 대한 인지 여부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정치 지식은 응답자의 원자료에 비율척도를 적용하여 변수의 정상 분포를 강제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처럼 주요 정치 행위자에 대한 인지 여부가 정치 지식을 측정하는 주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묻는 질문은 상당한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질문으로, 미국 유권자의 경우 지역구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의 이름을 상기(recall)하는 유권자는 각각 29%,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299). 위의 두 연구에서는 측정된 정치 지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이 제시되지 않아 한국과 미국 유권자 사이의 명시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정치 지식 수준에 있어서 한국 유권자의 정치 지식수준이 미국 유권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두 연구에서 정치 지식의 측정은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정치 지식 변수의 충분한 정도의 변이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용주·차재권·김은미(2007)의 연구에서 정치 지식에 대한 상관관계이 원자료가 아닌 비율 척도를 강제한 변수값이 이용된 것은 원자료에서의 정치 지식 변수가 충분한 변이를 확



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통계적인 보완의 결과로 보여 진다.

### 3. 정책 공약 인지로 측정된 정치 지식

이철한·현경보(2007)는 미디어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 정치 불신감, 정치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지식의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증대에는 신문뉴스 보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정치 지식은 “[서울시장]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통해 측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6개의 질문—서울시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 서울시가 개발할 뉴타운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후보,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올림픽 동부간선로에 지하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면 서민이라고 주장하였던 후보는 각각 누구인가—을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해서 보기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제시하여 맞는 후보를 고르게 하고…각 질문에 대해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고 총 맞은 개수를 합산하여 정치지식을 측정하였다”(124).

이 연구에서 측정된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인지 여부는 지방 선거에서의 구체적인 공약 사항과 후보를 연결하는 질문으로 일반적인 차원의 정치 지식의 측정이 아니라 지방 선거 특수적인 정치 지식 측정이다.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 경우로 엄밀한 의미의 정치 지식의 측정이 아니다. 게다가 지방 선거에서의 정책 공약에 대한 인지 여부는 지방선거에서의 일반적으로 낮은 선거 관심도와 설문이 묻는 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 등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다. 예컨대 상당한 정도의 일반적인 정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용산, 뉴타운, 올림픽동부간선도로, 1가구 1주택 문제에 관심이나 이해관계가 작을 수 있고, 이 경우 이들 선거 특수적인 설문 항목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정치 지식의 평균값은 1.36으로 이론적인 최대값이 6.0임을 고려할 때 변수의 적절한 변이를 확보한 측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구자들 역시 연구의 한계점으로 정치 지식 측정의 불완전성에 대해 언급한다. 즉, “정치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답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질문방식이 단편적인 지식만을 측정할 뿐 맥락적인 지식을 측정할 수 없는데 있다”(134). 여기서 연구자들이 언급하는 “단편적인 지식”은 지방선거 특수적인 지식

을 의미하고, “맥락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정치 지식을 의미한다고 보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차원의 정치 지식의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 측정의 유효성(validity)을 확보할 수 있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 4. 정치적 사건 및 정치 행위자 인지로 측정된 정치 지식

강내원(2006)은 개인들의 뉴스 이용이 그들의 국내외 정치사회적 관여(정치 지식, 사회 친밀감,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공공 사안에 대한 인지 여부를 통해 정치 지식을 측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 정치지식은 국제적인 갈등이나 정치에 관련된 외국 국가 및 지도자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식을 알아보는 3개 질문—러시아 대통령 이름, 카시미르 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두 국가를 묻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정답을 제시한 경우 1, 그렇지 못한 경우 0으로 코딩)한 후, 각 응답치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국내 정치 지식은 2003년 말인 설문 당시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식을 알아보는 3개 질문—경상남도 남해 군수이었다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되었던 사람, 현 국회의장의 이름, 국무위원인 정세현 씨가 장관으로 있는 행정부서를 묻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된 후, 각 응답치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289).

이 연구에서도 측정하고자 하는 정치 지식의 영역이 지나친 정도로 특수적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한계로 “정치지식에 대한 측정이 정치 인물 중심”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질문 방식이 지식을 측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하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강내원 2006, 300). 덧붙여 설문 문항 역시 매우 난해하다. 정치 지식의 이론적인 평균값은 3.50인데, 측정된 정치 지식 평균값은 0.95에 불과하다. 이는 설문 대상자가 질문된 6개 질문 중 1 문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측정된 정치 지식 변수는 이론적인 평균값 3.0으로부터 지나친 정도로 이탈해 있어서 모집단의 정치 지식수준을 왜곡할 뿐 아니라 변수로서의 적정한 변이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 5. 한국에서의 정치 지식 측정 방식에 대한 평가

이상의 연구들이 정치 지식수준을 나름의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엄밀한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기 보다는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표 1〉 정치 지식 설문 항목 평균 및 표준 편차

	문성철·양문희 (2009)	이효성·김인영 (2003)	전용주 외 (2007)	이철한·현경보 (2007)	강내원 (2006)
최소값-최대값	1-7	0-10	0-12	0-6	0-3
평균	4.23	— <sup>16)</sup>	—	1.36	국내 0.53 국제 0.42
표준편차	1.24	—	—	1.39	국내 0.41 국제 0.39

문제점을 갖는다고 보인다. 첫째, 지식 영역(knowledge domain) 혹은 설문 항목의 유효성(content validity)의 문제다. 델리 카피니와 키터(Delli Carpini and Keeter 1996)가 추천하는 5개의 핵심 설문 항목은 주요 정치 행위자(부통령의 이름 인지), 정치 제도(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의 의회 재 가결을 위한 찬성률, 사법적 해석 인지), 주요 정치 현안(하원 다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5개의 설문 항목(흑인 지지 정당, 상원 의원 임기, 고르바초프(Gorbachev), 만델라(Mandela), 지역구 하원 의원 후보) 역시 주요 정치 행위자, 정치 제도, 주요 정치 현안에 걸쳐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정치 지식 측정은 특정한 선거에서의 정책 공약이나 특수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인지 혹은 지역 단위의 정치인이나 지방 선거에서의 후보(주요 정치 행위자가 아니라)를 인지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정치 지식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둘째, 설문 항목의 난이도 문제다. 아래 <표 1>에 요약했듯이, 검토한 연구들에서 측정된 정치 지식의 평균값은 상당히 낮다. 전술했듯이 난이도가 높은 질문으로 구성된 측정 방식은 개인들 간 실제로 존재하는 정치 지식의 분산 정도를 축소함으로써 변수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설문 항목의 난이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변수의 안정성(stability) 및 등가성(equivalence)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변수의 유효성(validity) 뿐 아니라, 안정성(reliability) 역시 훼손되어 측정 시점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측정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정치 지식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및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설문 항목들 간의 상호관련성 문제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치 지식의 분포 양상 및

16) ‘—’은 정치 지식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값(descriptive statistics)이 저자에 의해 제시되지 않은 경우임.

그것의 여타 변수들(예컨대 학력, 소득,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 효능감, 미디어 이용 정도)과의 상호관련성(correlation)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측정된 정치 지식 변수가 이론이 예측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V. 결론에 대신하여: 정치 지식 연구의 과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취득 및 처리의 확대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들의 정치적 결정 및 선호형성이 이루어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가 제시하는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6월 시카고 대학의 법학 교수인 카스 서스틴(Cass Sustein)이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가 60개의 정치 관련 사이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해본 결과,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사이트에 대해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단지 15%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호적인 견해를 표방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60%가 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웹상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여기서도 약 15% 정도만이 반대 입장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올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스틴은 이 점에 대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세계가 반대 입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후기 사회적 갈등과 분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Barabási 저, 강병남·김기훈 역 2002, 280).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 웹상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구조는 일정하게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며 편향적이다. 개인들의 정보 검색 및 취득 역시 많은 경우 웹상에서의 이러한 정보 제공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러한 유형의 정보 검색 및 취득의 결과는 개인 차원에서의 폐쇄적·제한적·편향적 정보의 수용 및 그에 기반한 선택 및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웹상의 정보 제공 패턴과 연관된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잘못된 정보(incorrect or misled information)에 기초한 선호 형성의 가능성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취득이 일상화 되면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와 정치 엘리트에 의해 객관적·사실적 정보와 (가능한 딜) 편향적인 정보의 해석이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

지만, 개인 차원에서 역시 숙고되고 의식적인 정보 검색 및 처리를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개인 간 정보 검색, 취득, 처리 방식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상이한 정치적 선택 및 선호 형성에 이르는 인과적·심리적 동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구조화된 정치 지식을 소유한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더 많은 새로운 정보의 검색과 취득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 선호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인이나 여론에 의한 일정한 틀짓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일정한 도식화를 무릅쓰고 단순화한다면, 한 사회의 여론 역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정치 지식을 담보로 형성되었을 때 보다 많은 그리고 정확한 사실적 정보에 기초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첫 단계는 정치 지식에 대한 엄밀하고 효율적인, 나아가서는 표준화된 측정 방식의 개발이다. 다양한 설문 항목의 사전 검증을 통해 5개 내지 10개 설문 항목으로 압축된 표준화된 정치 지식 측정 방식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유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정치 지식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정책 이슈를 둘러싼 여론의 형성과 변화 및 선거에서의 후보 선택 등 다양한 연구에서의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치 지식의 표준화된 측정 및 척도 개발은 선거에서의 후보자 선택이나 공공정책에 대한 선호 형성 모형에서의 설명 및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확대를 통해 바람직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일련의 함의 및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 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1호, 91-111.
- 강내원. 2006. “뉴스 이용이 국내의 정치사회적 관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0집 6호, 277-304.
- 강원택. 2009.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131-146.
- 김민정·김원홍·이현출·김혜영. 2003.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 행태 — 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3호, 89-112.

- 김관규·구교태·이준웅. 2006. "후보의 텔레비전 효과연구: 2006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4호, 51-88.
- 나은경·이강형·김현석. 2009. "댓글 읽기/쓰기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과 사회신뢰, 정치신뢰, 언론신뢰, 그리고 정치지식." 『한국언론학보』 제53집 1호, 109-132.
- 문성철·양문희. 2009. "대통령 선거 토론 프로그램 시청이 정치 효능감과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3집 1호, 131-168.
- 이준웅. 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권 2호, 243-284.
- 이효성·김인영. 2003.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용이 유권자 정치참여(정치지식, 16대 대선관심, 정치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1집 2호, 29-63.
- 이철한·현경보. 2007. "유권자의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지식, 정치 효능감, 정치 불신감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제7권 4호, 112-142.
- 전용주·차재권·김은미. 2007. "정치사회화와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2호, 97-130.
- 조기숙·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243-268.
- 채장수. 2008.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1호, 129-150.
- Althaus, Scott L. 1998. "Information Effects in Collective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545-558.
- Althaus, S. L. and Tewksbury, D. 2000. "Patterns of Internet and Traditional News Media Use in a Networked Community." *Political Communication* 17, 21-45.
- Barabási, Albert-László 저. 강병남·김지운 역. 2003.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사이.
- Bargh, John A. 1994. "The Four Horseman of Automaticity: Awareness, Efficiency, Intention, and Control in Social Cognition." in R.S. Wyer, Jr. and T.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gh, John A. 1999. "The Cognitive Monster." in Chaiken, Shelly and Yaacov Trope. ed.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Bartels, Larry M. 1993. "Messages Received: The Political Impact of Media Exposu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267-85.
- Bartels, Larry M. 1996. "Uninformed Vote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194-230.

- Berinsky, Adam. 1999. "The Two Faces of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 1209-1230.
- Chaiken, Shelly.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No. 5, 752-770.
- Chaiken, Shelly, and Yaacov Trope. 1999.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 Dahl, Robert.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ruckman, James. 2004.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Com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Ir)relevance of Framing Effec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671-686.
- Eagly, Alice H. and Shelly Chaiken.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College Publishers.
- Fazio, Russell H. and Carol J. Williams. 1986. "Attitude Accessibility as a Moderator of the Attitude-perception and Attitude-Behavior Relations: An Investigation of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No. 3, 505-514.
- Finkel, Steven E. 1985. "Reciprocal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 Pan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No. 4, 891-913.
- Fiske, Susan T.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 No. 6, 621-628.
- Fishkin, James 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shkin, James S. 1995. *The Voice of the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amson, William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son, James L. 1992.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Intolerance: Cultural Conformity and Political Freedo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338-56.
- Gilens, Martin. 2001. "Political Ignorance and Collective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No. 2, 379-396.
- Gerber, Dorris A. 1994. "Why Voters Fail Information Tests: Can the Hurdles be Overcome?" *Po-*

*litical Communication* 11, 33-46.

- Iyengar, Shanto and Donald R. Kidne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klinski, James H. 2002. *Thinking About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klinski, James H., Paul J. Quirk, David W. Schwieder, and Robert F. Rich. 1998. "Just the Facts, Ma'am": Political Facts and Public Opin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0, 143-154.
- Kunda, Ziva.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 No. 3, 480-498.
- Lau, Richard R. and David P. Redlawsk. 1997. "Voting Correctl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No. 3, 585-598.
- Lau, Richard R. and David P. Redlawsk. 2001.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gnitive Heuristics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No. 4, 951-971.
- Leighley, Jan E. 1991. "Participation as a Stimulus of Politic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53, 198-211.
- Lipset, Seymour Martin.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London: Heinemann.
- Lodge, Milton and Ruth Hanmill.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No. 2, 505-519.
- Lodge, Milton and Kathleen McGraw. 1995. *Political Judgment: Structure and Proc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upia, Arthur, Mathew D. McCubbins, and Samuel L. Popkin. 2000. *Elements of Reason: Cognition, Choice, and the Bounds of Ra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pia, Arthur and Mathew D. McCubbins. 1998. *The Democratic Dilemma: Can Citizens Learn What They Really Need to K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skin, Robert C. 1987. "Measuring Political Sophist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856-899.
- Luskin, Robert C., James S. Fishkin, And Roger Jowell. 2002. "Considered Opinions: Deliberative Polling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No. 3, 455-487.
- Mondak, Jeffrey J. 1999. "Reconsidering the Measurement of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Analysis* 8. No. 1, 57-82.
- Nelson, Thomas, Rosalee Clawson, and Zoe Oxley. 1997. "Media Framing of a Civil Liberties



- Conflict and Its Effect on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567-583.
- Neuman, W. Russell. 1986. *The Paradox of Mass Politics: Knowledge and Opin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mi, Richard G., Stephen C. Craig and Franco Mattei.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No. 4, 1407-1413.
- Petty, Richard E. and John T. Cacioppo. 1986.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Verlag.
- Popkin, Samuel L. 1991.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Campaig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Price, Vincent and John Zaller. 1993. "Who Gets the News: Alternative Measures of News Perception and Their Implication for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57. No. 2, 133-164.
- Redlawsk, David. 2002. "Hot Cognition or Cool Consideration: Testing the Effects of Motivated Reason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litics* 64. No. 4, 1021-1044.
- Shaw, Daron R. 1999. "A Study of Presidential Campaign Event Effects from 1952 to 1992." *Journal of Politics* 61. No. 2, 387-422.
- Smith, Eric R.A.N. 1989. *The Unchanging American Vo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niderman, Paul M., Richard A. Brody and Phillip E. Tetlock. 1991. *Reasoning and Choice: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ber, Charles S. and Milton Lodge.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No. 3, 755-769.
- Valentino, Nicholas, Vincent Hutchings, and Ismail White. 2002. "Cues that Matter: How Political Ads Prime Racial Attitudes During Campaig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75-90.
- Wyer, Robert, and T.K. Srull. 1989. *Memory and Cognition in its Social Context*. Hillsdale, NJ: Erlbaum.
- Wyer, Robert, and Victor Ottati. 1993. "Affect and Political Judgment," in Shanto Iyengar and William J. McGuire. eds. *Exploration in Political Psycholog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 Research Note on Korean Voters' Political Knowledge

Jaesung Ryu | Keimyu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first to survey the existing literatures which tap political knowledge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in explaining individuals'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policy preferences in Korea. I argue that despite critical roles that political knowledge as well as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efficacy plays for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change, there are a few studies in Korea that highlight political knowledge as a critical concept in the study of public opinion. In addition, I demonstrate that although some researchers implicitly or explicitly use the term of political knowledge in their explanatory, statistical models, they do not in fact measure political knowledge in a rigorous way. Summarizing the roles that political knowledge plays in individuals' information acquisition and processing, making public opinion, and managing democracy, I discuss what political knowledge is and how it can be measured.

**Keywords:** political knowledge,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change